

# 문 대통령 3말4초 워싱턴 방문 검토

### 靑, 한미정상회담 추진... "트럼프, 할 얘기 많다고 해"

靑와대는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워싱턴 방문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靑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9일 한미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날짜를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할 얘기가 많다'고 해 '조만간 만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만나다면 문 대통령이 워싱턴에 한 번 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미 정상 간 일정은) 28일 오전 회담, 오찬, 오후 회담, 기자회견 등으로 짜여 있다"며 "(그날) 저녁 (한미 정상회담) 통화하면 언제 만날지 등이 결정

되지 않겠다"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한미정상회담이 추진될 경우 이른바 3말4초(3월말-4월초)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5월에 한국을 함께 방문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작년 11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새로운 일정이 즉위하는 올해 5월 일본 방문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답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 장소인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한 상황을 문 대통령이 보고받았는지에 대해 "안보실장이 관련 동향을 보고했고, 대통령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고 답했다. 또한 김 위원장이 베트남 방문 기간 베트남 현지에서 진출한 한국 기업을 방문할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 기업까지 방문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靑와대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이날 "북미회담에서 큰 진척을 이루기를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김의겸靑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백악관에서 발표한 일정과 저희가 파악한 일정으로 봤을 때 (북미) 두 지도자가 직접 얼굴을 맞대고 깊은 대화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비핵화 합의를 기대하는가'라는 물음에 "안전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기를 바랄 뿐"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북한 경제 개방 시 한국이 주도권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궁극적으로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투자하고 경제협력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를 위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대응)해나가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라며 "현재 북미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 결과를 선별리 예단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날 브리핑에서 북미 간 중전선언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중전선언의 내용을 담은 두 정상 간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기대한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전남도 빛낸 인물 성공스토리 찾습니다"

도, 경제·교육·문화·예술 등 전 분야... 내달 15일까지

전남도가 지역을 빛낸 인물의 성공 스토리를 찾는다.

전남도는 26일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청소년들에게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한다"고 밝혔다.

지역 청소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인물들을 소개하는 취지다. 발굴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경제·교육·문화·예술 등을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전남을 빛낸 인물들을 찾는다.

전남 출신이어도 되고 고향은 전남이 아니더라도 전남과 인연을 맺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최근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유투버나 드론 전문가와 같은 학생들의 관심 분야 인물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전남도는 도민과 유관기관을 상대로 다음 달 15일까지 '전남을 빛낸 인물'을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시·군·출연기관, 교육청, 각급 학교 대학 등에도 추천을 요청하고 전남도 실·국별로도 유관 업무 분야의 '인물 찾기'에 집중한다. 공모와 추천이 끝나면 3월 말까지 대상자의 성과를 확인하는 검증작업을 거친다.

선정자를 바라보는 지역사회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동종업계 종사자와 전문가 등도 활용할 계획이다. 오는 4월 8-19일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대상자를 선정할 후 5월께 책자 발간에 나선다.

짧은 글을 선호하는 학생들을 고려해 키워드와 삽화 중심으로 책자를 구성하고 단순 스토리 나열보다는 멘토가 당부하는 메시지 형식으로 책자를 채운다. 또 현지 인터뷰를 포함한 성공스토리의 공감대와 현장감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사회환경 변화로 새로운 인물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므로 매년 시리즈 형태로 책자를 제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하노이선언 영변폐기 종전선언... 김정은版 '남순강화' 나올까

### 북미정상회담 3대 관전포인트

#### 김 위원장 경제 시찰 관심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하노이 입성을 시작으로 사실상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최대의 관전 포인트는 '하노이 선언'에 담긴 비핵화 및 상응조치의 내용으로 꼽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도이머이(쇄신) 견학 행보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하노이 선언 무엇을 담나=두 정상이 28일 서명할 것으로 보이는 '하노이 선언'(가칭)은 작년 1차 북미정상회담(싱가포르) 합의의 3대 축인 완전한 비핵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최대 관심사는 선언에 명기될 비핵화 조치의 수위다. 작년 9월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언급한 '영변 핵시설 폐기'가 어떤 식으로 표현될지 주목된다. 우리농축수산물 포함 영변 모든 시설의 영구적 폐기가 시한과 함께 합의문에 명시될지 주목되는 것이다. 만약 미국 상응조치와의 조율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합의문에는 영변 핵시설의 폐기보다 수준이 낮은 동결(가동중단)을 담을 수도 있다.

시한은 명시하지 않더라도 비핵화의 최종적 목표는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 핵프로그램(핵시설)의 전면적 폐기 공약을 담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첫 교두보가 될 포괄적 핵 신고 약속을 포함할지도 관심이 있다.

6·25 전쟁의 종전선언이 포함될지에 관한 포인트다. 25일 김의겸靑와대 대변인이 북미 양자 종전선언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평화선언'으로 명명될 가능성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베트남 랑성성 동당역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이 탄 전용차를 경호원이 V자를 이뤄 경호하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론된다. 종전선언이 하노이 선언에 명기되거나 부속 문서로 도출될 경우 그것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69년만에, 북미 적대관계 청산과 양국 수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이머이의 현장' 찾은 김정은 산업 시설 어디 둘러볼까=김 위원장의 이번 베트남 방문은 조부 김일성 주석이 1958년과 1964년 2차례 찾았던 곳에 간다는 점과 미국과 전쟁을 치른 후 개혁·개방에 성공한 사회주의 국가를 방문한다는 점에서 특별히 관심을 모았다. 김 위원장이 베트남 체류 기간 방문할 장소들은 '김일성 코드'와 '도이머이(쇄신·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상징하는 말) 코드'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관측들은 보고 있다. '김일성 코드'로는 김 주석이 두차례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만났던 '국부' 호찌민의 묘소를 김 위원장이 찾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노이 동쪽 광진성에 있는 유명 관광지 하롱베이 역시 '김일성 항구 자국' 차원에서 유력한 방문 후보지로 꼽힌다. 하롱베이는 김 위원장의 조부인 김일성 북한 주석이 베트남을 두 번째로 방문한 1964년에 찾았던 곳이며, 김 위원장이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 관광 분야에서 견학할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도이머이 코드'와 관련해서는 하노이에서 110km쯤 떨어진 베트남 북부 최대 항구

도시인 하이퐁의 산업단지를 방문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하이퐁에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이 대거 몰려 있는데다가 베트남의 첫 완성차 업체 '빈 패스트'(Vinfast) 공장이 있다.

김 위원장의 경제 시찰이 실현되고, 거기서 김 위원장이 개혁 지향적 메시지를 내놓을 경우 그것은 중국 덩샤오핑(1904~1997)의 '남순강화(南巡講話)'를 연상시키며 세계의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남순강화는 덩샤오핑이 1989년 텐안먼 사태 이후 보수파 측에서 중국 개혁개방의 위기가 거론되던 1992년 중 우한, 주하이 등지를 시찰하면서 개혁·개방 가속화 구상을 밝힌 것을 말한다. /연합뉴스

## 고려청자 기원 '청자 순화4년...' 국보 승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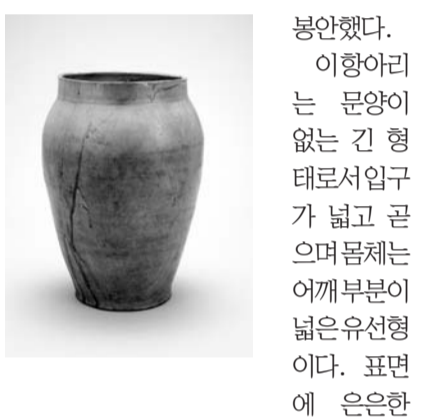
고려청자의 기원을 알 수 있는 보물 청자 항아리가 국보로 승격된다.

문화재청은 보물 제273호 '청자 순화4년(淸化四年)명 항아리'(사진)를 국보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910년 처음 공개됐던 이 항아리는 바닥면 굽 안쪽에 '순화사년 계사 태조제일일 항기 장최길회 조'(淸化四年癸巳 太宗第一室享器匠崔吉會造)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순화는 송 태종이 사용한 네 번째 연호로 순화4년은 993년이며 문구는 '993년에 태조 제1실 항기(享器·제기)로서 장인 최길회가 만들었다'는 뜻이다. 높이는 35.2cm이며 문양이 없다.

1910년경 세상에 알려졌지만 발굴경위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후 일본인 소장가를 거쳐 1957년 이화여대가 구매해 소장해오고 있다.

고려사에 따르면 황해도 개풍군 영남면 용흥리에 위치했던 태묘는 송나라 제도를 참고해 992년 12월 1일에 조성했고, 제1실에는 태조 왕건과 비의 신주를



방안했다. 이항아리는 문양이 없는 긴 형태로서입구가 넓고 곧으며몸체는 어깨부분이 넓은유선형이다. 표면에는 은은한 광택과 함께 유약이 균으면서 생긴 미세한 금인 빗살(氷裂), 금진 흔적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북한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가 1989~1990년 황해도 배천군 원산리 2호 가마터에서 발굴한 '순화3년(淸化三年)명 고배(高杯·굽다리접시)'를 비롯해 다른 파편에서도 확인된다.

한때는 청자가 아닌 백자라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지금은 청자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한 편이다.

/박정욱 기자 skypark@kwangju.co.kr

<h1>임야</h1>	<h1>오천경매</h1>
<p>단독심/지분물건 환영</p> <p>바로합니다.010-6834-7400</p>	<p>★투자에 관한 모든상담★</p> <p>최신규(예약필수).010-3605-5000</p>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임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 수강생 모집

### DIY 이동식 전원주택짓기

전원주택, 목조주택, 펜션, 농막

###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3월 ~ 6월 매주 화요일 저녁7시 ~ 9시
남부대학교 삼매관 ☎ 062-970-0082~3
3월 ~ 6월 매주 목요일 저녁7시 ~ 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3월 ~ 6월 매주 수요일 저녁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 2019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8기)	광주교육대학교(19기)
모집/과정	·금요일 오전반 2019. 3. 8(금) 09:10(중급반)	·금요일 오후반 2019. 3. 8(금) 14:10(중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9. 3. 9(토) 09:10(특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9. 3. 9(토) 14:10(고급반)
모집기간	2019. 1. 25(금) ~ 3. 9(토)	
수업기간	2019. 3. 8(금) ~ 2019. 8. 10(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오전반 09:10 ~ 13:00 ·오후반 14:10 ~ 18:00	
수료후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2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li> <li>·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li> <li>·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가능</li> <li>· 각급학교(방과 후교육) 강사 추천</li> <li>·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범) 취득기회 부여</li> </ul>	
수강료	₩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 : 148-107-307803	₩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 773901-01-476736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 062) 950-3582-4 ·지도교수(선병광) 010-3614-4160	·문 의 : 062) 520-4243 ·지도교수(선병광)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 혈당조질

##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식후 2개월씩... 하루 2번으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OK!!!  
**2박스 구매하신 분께 양달분 더 드립니다**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질이 충분합니다.

##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혈당조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질이 잘 안되시는 분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KHSA  
 심의번호 : 21719239

# 010-3598-7080